

삼성ENG, 중동 플랜트 수주 호조

대우증권, 2012년 상반기 7조원 전망 ... 1/4분기 매출 2조6000억원

삼성엔지니어링이 2012년 상반기에 7조원의 수주를 달성할 것이라고 대우증권이 3월9일 전망했다.

대우증권 송홍익 연구원은 “삼성엔지니어링의 상반기 수주규모는 그룹사 수주 2조원을 포함해 7조원 내외가 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또 “상반기에 아랍에미리트 카본블랙(Carbon Black), 사우디 사다라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수주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삼성엔지니어링의 수주 가능성이 크다”고 주장했다.

이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의 2012년 1/4분기 매출이 2조6000억원, 영업이익은 18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.

아울러 삼성엔지니어링이 2012년 상반기에도 수주 모멘텀과 이익률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대우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 의견을 <매수>로,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09>